



◇바라나시 갠지스강-생사의 노래(273×193cm).

삶과 죽음 공존하는 구원의 江

마음 씻고 하늘로 돌아가는 길

(바라나시 갠지스강에서)

삶과 죽음이 한자리에 펼쳐지는 곳.

생사(生死)의 길이 본래의 면목(面目)을 깨닫게 하는 곳. 불과 물이 상극(相克)이 아니라 연기(緣起)요, 상생(相生)의 존재임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바라나시(Varanasi)의 갠지스(Ganges)강이다.

누구나 인도를 여행할 때 빼놓지 않는 갠지스강은 '강가(Ganga)강'으로도 부르는데 이는 어머니의 신(神)(Gangamataji)으로 숭배하는 까닭에서 비롯되었다. 모든 것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끝끝내 구원해 준다는 어머니의 강, 갠지스 주변은 인류의 고향이자 영혼의 안식처로 연일 수구초심(首丘初心)이 되어 복적되고 있었다.

이른 아침, 동이 뜨기 전 자전거 립사를 나누어 타고 강가에 도착한 일행은 강을 건너기 전 온갖 사원이 즐비한 뒷골목을 먼저 탐방했다. 온갖 온돌과 쇠통, 그리고 비릿한 냄새. 드러누운 채 빼만 남은 늙은 걸인의 눈빛, 비좁은 골목에서 호객행위를 일삼는 젊은 상인. 뛰어다니며 살판난 소와 원숭이, 그리고 수없는 종교 사원이 별천지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저마다의 신(神)을 향해 향을 사르고 예배를 하기 위한 복장과 치장, 화장한 모습이며 갖가지 의식행위는 가히 갠지스강변의 별천지나 나그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 중 황금사원으로 불리는 비쉬와나트사원(Vishwanath Temple)은 회교사원과 나란히 눈에 띄는데 12세기 이후 이슬람교도와의 분쟁으로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고 한다. 총을 든 경비원이 눈에 피듯 현재 힌두교인만이 출입이 가능하다는 곳을 모두 배낭을 맸고 비공식적으로 타협해서 좁은 계단을 올랐다. 턱턱에 나는 풍속에 감추고 간 화점을 꺼내 황금사원을 담을 수 있었고, 미로의 골목엔 한국인을 위한 숙박소가 한길로 쪼여져 있어 반가우니 우리 여행객들이 반드시 찾는 지역임을 여실히 실감나게 한다. 인도인과 외국인들 틈에 끼어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다녀갔을까. 인도와 인연이 닿은 한국인들.

인도 2권기행 20

그림·글 이호신

예배위한 치장과 의식은 강변의 별천지 미로 골목의 한글간판 우리 여행객 반겨 화장터 흰 연기와 어우러진 해돋이 장관

그들은 분명 갠지스에 와서 삶과 죽음을 떠올리며 조용히 전율하였으리라. 적어도 그 순간에는 영혼의 안식처로 받아들였으리라. 무엇이 고통이고 진정한 행복인가를 돌이켜 보았으리라.

동이 뜨기 전 서둘러 배를 빌려 선착하자 온갖 토산품과 등잔불이 모래톱을 향해 배안에 가득하다. 모두들 소망과 참회의 등불을 가슴에 피워 어머니의 강에 조용히 띄워 보낸다. 그 모습들이 유난히 오늘날따라 맑고 경건해 보인다.

스산한 백사장 천막에서 짜이 헌전을 사 마시며 서성이는 사이, 마침내 해가 올라오자 현지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옷을 벗고 강물에 뛰어든다. 어느 배엔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주문을 외고 차례차례 물속으로 잠기는 게 아닌가.

다시 배를 타고 도강 하는데 한 마리가 헤엄치니 개도 강을 건너가는 모양이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강쪽을 바라보며 내뱉는 누군가의 말이 섬뜩하게 들려왔다.

"아, 저 개요. 매일 강가에 버려진 인육(人肉)을 먹어 저렇게 힘이 솟을 겁니다. 야라도..."

개의 숨찬 도강을 지켜보는 사이, 화장터엔 흰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주변엔 수많은 사람들이 불어나 갠지스강 해돋이의 장관을 만끽하고 있었다.

기도하는 이, 물을 마시고 몸을 씻는 이, 불장구를 치는 아이들과 어린아이를 물에 담구는 이, 온갖 원색의 사리와 검붉은 피부의 나신들이 만다라를 이루고 소망의 등불을 물에 띄우는 성스러운 모습이 강물위에 펼쳐졌다.

생(生)과 사(死)의 향연. 육신을 거두고 하늘로 돌아가는 길. 강물에 영혼을 씻고 불길따라 천상에 오르는 다비의식은 애절함 보다는 순리를 따르는 인간의 길로 가려진다.

그런데 잠시, 십년 전(1993년)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의 다비장길에 내리던 가을 꽃비와 만인의 열불송, 그리고 만장 행렬이 새삼 불꽃연기 속에 피어 오르는 게 아닌가. 오! 적멸(寂滅)의 세계, 생사의 코스모스(Cosmos).

"생(生)과 사(死)는 계속해서 흐르는 하나의 지류, 자연의 윤행. 여기에서 생과 사가 다 같이 하나의 위대한 생명인 것이다"라고 한 윤오영의 <외병수감(外病隨感)>으로부터 "나는 죽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에서 적멸을 느낀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없어진다. 끊임없이, 불생불멸이 모든 사물의 존재양식이란 생각이 들면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삶이 경이스럽다. 사람은 죽기 때문에 행동하고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인간 삶의 온 과정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적멸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다"라고 갈파한 강우방 선생의 <적멸삼매(寂滅三昧)>가 되뇌어 진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에서는 산자의 행위가 죽은 자를 보내는 의식도 결코 만인에게 고르지는 못한 법인가. 갠지스강에 뿌려질 수 있는 땀가루도 가진 자의 유족 순서로 다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기에 반영이다.

화장터로 오는 시체는 대나무 들것에 실려 오는데 남성은 흰색, 여성은 오렌지색 천에 싸여 꽃을 치장한 채 실려와 강물에 담긴 뒤 화장시킨다고 한다. 사망자 직계가족은 13일 동안 금식, 일찍 집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전통이 보내는 자에 대한 남은 자의 예우라는 말을 들으며 또 갠지스강을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강가에서 되새겨 보는 생사의 반주. "언젠가는 저 피어오르는 불꽃 연기처럼 마침내 내게도 하늘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리라."

lsh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화제의 염주 북한염주
합격의 행운을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전들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회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합격의 행운을
2문제 맞추지 못해 낙방하는 수험생이 50% 이상 된다는 통계를 보면 이것은 실력의 문제 보다 마음의 안정이다. 그러므로 금강염주를 수험생 방에 걸어 놓으면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으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마음의 안정을 주어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영험의 필승 염주입니다. 시험당일 수험생은 금강 108염주를 품에 꼭 지니고 가야합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부병중인 분, 큰 고된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생되며 정진 발원시 일일부야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으시면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는 다음 27가지 소원을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성립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월 금액 195,000원
전화로 주소 성명 알려주시면 우체국 통기소로 전국 어디나 미리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1723-0909 金剛念珠社
서울시 중구 문교동 177 (대흥 B/D) 406호

연꽃축제기념 행사기간 동안 전화 주시면 3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물러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적이다. 워터스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 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복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 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방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마디 하면 스님께서 영어로 대답해주시고 스님께서 문장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 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지니컴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안 하든가 수정해준다. 영어에 기초가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형한편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LCD형 영어로봇 '뉴지니컴'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9